

ISSN 1598-4877(Print)  
ISSN 2508-6723(Online)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5권 제11호 별쇄

논문 25-25-11-62

2025년 11월

<https://doi.org/10.5392/JKCA.2025.25.11.745>

**신혼부부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은유적 인식:  
신혼희망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A Metaphor Analysis of Community Facility Perceptions:  
Focusing on Newlywed Hope Town Residents**

권혜진\*, 이지영\*\*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신구대학교 건축학과\*

Tarla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rts and Social Science, Dept English Language Studies\*\*

Hye-Jin Kwon(legenddesign@naver.com)\*, Jiyoung Lee(jlee@tsu.edu.ph)\*\*

사단  
법인 한국콘텐츠학회

# 신혼부부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은유적 인식: 신혼희망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 A Metaphor Analysis of Community Facility Perceptions: Focusing on Newlywed Hope Town Residents

권혜진\*, 이지영\*\*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신구대학교 건축학과\*

Tarla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rts and Social Science, Dept English Language Studies\*\*

Hye-Jin Kwon(legenddesign@naver.com)\*, Jiyoung Lee(jlee@tsu.edu.ph)\*\*

### 요약

본 연구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은유적 인식을 분석하여 이들이 공동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메타포 질문을 활용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응답을 유의미한 주제로 범주화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혼부부들은 커뮤니티 시설을 자녀의 보육과 돌봄, 놀이와 학습, 건강과 안전, 육아지원, 가족의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간이 일상 속 돌봄과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신혼기 부모의 공간 욕구를 반영한 커뮤니티 정책에서의 필요 순위와 설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중심어 : 신혼희망타운 | 커뮤니티시설 | 메타포분석 | 신혼부부 | 공동체공간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newlywed couples' metaphorical perceptions of community facilities in the Newlywed Hope Town. Using an open-ended survey with metaphorical prompts, responses were categorized into themes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that participants perceived community facilities as spaces for childcare, play and learning integration, health and safety, parenting support, and family convenience. These perceptions highlight community facilities as symbolic resources that contribute to caregiving practices and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in early family life. Unlike prior research focusing mainly on functional or quantitative indicators, this study emphasizes the metaphorical and symbolic dimensions of communal space, thereby offering unique insights for policy and design guidelines. The study concludes with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family-oriented community policies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integrating qualitative metaphor analysis with quantitative validation methods.

■ keyword : Newlywed Hope Town | Community Facilities | Metaphor Analysis | Newlywed Couples | Communal Space |

## I. 서론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이 심화되면서, 육아를 지원하는 물리적·사회적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거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신혼희망타운'은

접수일자 : 2025년 07월 31일

수정일자 : 2025년 09월 29일

심사완료일 : 2025년 11월 01일

교신저자 : 이지영, e-mail : jlee@tsu.edu.ph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커뮤니티 시설은 단순한 편의 공간을 넘어 부모들의 삶의 방식과 양육 철학을 반영하는 상징적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시설의 기능성, 이용률, 만족도 등의 정량적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혼부부가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탐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메타포 분석(metaphor analysis)'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신혼부부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메타포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인지적 틀(cognitive framework)로 작동하며[1], 개인의 경험, 가치, 태도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이다. 특히, 일상적인 공간이나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타포는 그들의 심리적 욕구, 문화적 배경, 사회적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구적 유의미성이 크다.

선행연구에서도 메타포 분석은 부모의 유아 놀이공간 인식[2], 놀이와 학습의 관계[3], 아이돌보미의 돌봄 경험[4] 등 다양한 돌봄과 교육 맥락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메타포를 통해 부모 및 돌봄 종사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공간에 대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또한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혼부부'라는 독특한 가족 생애주기 및 욕구를 반영한 메타포 연구는 드물며, 특히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육아보육지원 정책 기반 커뮤니티를 배경으로 한 메타포 분석은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신혼희망타운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메타포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그 공간이 어떤 의미로 내면화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간 설계와 정책 기획에 있어 이용자의 주관적 의미 구조를 반영한 접근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부모 중심 커뮤니티 공간의 구성 및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천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메타포 이론과 개념적 은유이론

메타포는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닌, 인간의 인지와 사고에 깊숙이 작용하는 언어 구조이자 인지 도구이다. Lakoff와 Johnson(1980)은 고전적인 저작 *Metaphors We Live By*에서 "메타포는 우리가 사는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 그들은 일상 언어 속에 체화된 수많은 은유적 표현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추상 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개념적 은유이론(CMT: Conceptual Metaphor Theory)이라고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삶은 여정이다(life is a journey)'라는 표현은 삶이라는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물리적 움직임이라는 더 구체적인 틀로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개념적 은유는 교육, 돌봄, 관계, 공간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5].

본 연구에서도 이 이론은 신혼부부가 커뮤니티 내 육아 관련 공간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가를 탐색하는 주요 분석 틀로 활용된다. 메타포 분석은 그들이 시설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로 보지 않고, 삶의 터전, 정서적 안식처, 혹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거점 등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 2. 공간에 대한 인식과 상징성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넘어서, 사람들의 기억, 감정, 상호작용이 축적되는 상징적 장소(symbolic place)로 기능한다[6]. 특히 육아 공간은 돌봄의 윤리(care ethics)와 긴밀히 연결되며, 부모들은 그러한 공간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 육아에 대한 자기효능감,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경험하게 된다[7][8].

신혼희망타운의 커뮤니티 시설은 정책적으로는 '육아지원 공간'으로 명명되지만, 실제 사용자에게는 '삶의 쉼터', '사회적 교류의 장', '시간 절약의 전략' 등 다양한 상징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공간 경험

은 단지 이용 행태에 국한되지 않고,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시설의 사회적 기능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9].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 시설’은 일차적으로 단지 내 설치된 물리적 공간(어린이집, 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기능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보육·교육 지원, 건강·안전 활동, 공동체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단순한 공간 현황을 넘어 신혼부부가 경험하는 생활지원·사회적 기능까지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 3.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선행연구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개발과 함께, 커뮤니티 시설은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과 양육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권혜진 외(2020)는 신혼희망타운 커뮤니티 시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과 시설 선호도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어린이집 등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맞벌이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10].

강다연과 김덕수(2024)는 민간 분양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시설의 유형별 선호도와 이용 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과도하거나 미사용되는 시설은 유휴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시설의 물리적 규모뿐 아니라 운영 관리, 배치 위치, 이용 편의성 등이 커뮤니티 시설의 실효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1].

송채윤, 황세원(2025)은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 간의 커뮤니티 시설 분포 및 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강남은 고급화 전략과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자족형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한 반면, 강북은 법

적 기준에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12].

정정희 외(2021)는 국민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다목적실 등 고빈도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 거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커뮤니티 공간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다[13].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티 시설의 선호도 및 이용 행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시설 현황과 법적 기준에 기반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10][11][13]. 또한 송채윤과 황세원(2025)의 연구에서는 지역 간 커뮤니티 시설의 분포와 질적 격차를 공간적 배치와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12].

이러한 연구들은 입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공간 계획과 시설 운영의 실천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특히 정서적·상징적 의미와 공간에 대한 내면적 해석을 드러내는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는 삶의 전환기적 특성(결혼, 출산, 자녀 양육 시작 등)을 갖고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관계 형성, 사회적 소속감, 부모 역할 수행,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투영하는 의미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인식하고, 그 공간에서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 삶과 연결짓는지에 대한 질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저출산 대응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이 단지는 육아 친화적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보육 및 교육 특화 서비스를 반영한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분양형과 장기 임대형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다양한 소득 수준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혼희망타운을 사례로 하여 신혼부부가 커뮤니티 시설을 어떠한 은유로 인식하고 표현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기존의 기능 중심·시설 중심 담론에서 벗어나 사용자 중심의 정서적 공간 이해와 상징적 의미 부여의 차원을 조명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신혼부부’ 일반이 아니라, LH가 공급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 150명으로 구성되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혼인 기간과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거주자 중에는 결혼 7년 이상, 40대, 다자녀 가구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혼부부’ 용어는 정책적 맥락에서 규정된 입주자 범주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연구에 포함된 단지는 최근 5년 이내(2021~2025년) 설계 및 입주가 이루어진 수도권 신축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서울 강남구 디아크라운 597세대 (입주연도 2021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 나인포레 750세대 (입주연도 2022년), 경기도 화성시 동탄2 디에트르 포레 1170세대 (입주연도 2022년)를 포함한다. 이들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은유적 인식을 탐색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무응답(‘없음’, ‘모름’ 등) 및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133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20대 후반에서 50대의 연령 분포를 보였으며,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6월에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3)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자	45	34	자녀 유무	있음	90	68
	여자	88	66		없음	43	32
연령	20대	17	13	자녀 수	없음	43	32
	30대	72	54		1명	57	43
	40대	35	26		2명	31	23
	50대	9	7		3명 이상	3	2
전체	133	100.0	전체	133	100.0		

####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단순히 시설 선호도나 이용률을 묻는 일반적 설문조사와 달리,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내적 경험과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메타포 분석은 응답자가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욕구와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며, 이는 통상적인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은유적 인식을 살펴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은유적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활용하였다[14][15].

설문은 다음의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은 ( )이다.”와 “그 이유는?”이다.

첫 번째 문항은 핵심 메타포를 도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참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 두 번째 문항은 해당 시설을 선택한 은유적 또는 기능적 이유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으로, 응답자의 개인적 경험과 가치관이 반영된 서술형 응답을 유도하였다.

수집된 개방형 응답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정제되었으며, ‘없음’, ‘모름’, 무의미한 응답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유사 응답을 통합한 정규화된 명사형 표현(normalized facility)을 생성하였고, 연구자 간 검토를 통해 주제 클러스터(theme cluster)를 구성하였다. 주제 코딩은 선행연구와 유사 개념 분석을 참조하여 총 5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은유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메타포 분석(metaph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개방형 응답 자료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분석되었다.

첫째, 정규화 작업(normalization)을 통해 다양한 표현으로 기술된 시설명을 공통된 명사형 형태로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 ‘놀이터’, ‘놀이공간’ 등은 모두 ‘놀이터’로 정규화되었다.

둘째, 정규화된 응답을 중심으로, 유사한 인식과 기능을 지닌 응답을 통합하여 5개의 주제 클러스터(theme clusters)로 범주화하였다. 주제 분류는 기존 커뮤니티 시설 연구[10][16] 및 유사 개념 구조를 참고하여 구성되었으며,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코딩한 뒤 상호 합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셋째, 각 주제에 해당하는 수록 단어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주제 내에서의 상대적 비율(%)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가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어떤 은유적 인식과 상징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빈도 상위 수록 단어에 대해 응답 예시를 선별하여 질적 서술을 보완하였으며, 주제별 핵심 메타포 표현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였다. 일부 응답은 '없음', '모름' 등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로 분류되어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IV. 연구결과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메타포들을 주제별로 범주화 하였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주제와 메타포, 빈도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메타포를 그 근거가 유사한 것끼리 범주화한 결과 5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는 '놀이와 학습의 융합공간', '자녀 보육과 돌봄의 공간', '건강과 안전 보호의 공간', '육아지원의 허브',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이었다. 그 중에서 '놀이와 학습의 융합공간'이 메타포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n=46, 31.7%), '자녀 보육과 돌봄의 공간'(n=32, 22.1%), '건강과 안전보호의 공간'(n=22,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의 각 주제별 메타포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2.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메타포의 주제

주제	메타포	n	%
놀이와 학습의 융합공간	놀이터(16), 실내놀이터(7), 놀이방(5), 놀이공간(4), 문화센터(2), 어린이 도서관(2), 키즈카페(1), 공부방(1), 놀이교육(1), 놀이센터(1), 체험교실(1), 키즈룸(1), 프로그램(1)	43	32.3
자녀 보육과 돌봄의 공간	어린이집(9), 보육시설(9), 돌봄시설(8), 교육시설(5), 유치원(2), 방과후교실(2)	35	26.3
건강과 안전 보호의 공간	안전시설(10), 안전(3), 체육관(2), 공원(2), CCTV가 있는 놀이터 및 키즈시설(1), 냉방시설(1), 산책로(1), 서밋(1), 아동 안전이 보장된 시설(1)	22	16.5
육아지원의 허브	공동육아(5), 육아커뮤니티(3), 커뮤니티공간(3), 육아용품대여(2), 육아공유공간(2), 맘스튜디오(1), 육아상담실(1), 육아센터(1), 종합보육센터(1)	19	14.3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및 편의성	편의성(5), 편의시설(4), 식당(1), 신혼커뮤니티와 멀티룸(1), 어린이 식당(1), 영화관(1), 온가족카페(1)	14	10.5
전체		133	100.0

#### 1. 놀이와 학습의 융합공간

'놀이와 학습의 융합공간' 주제에 대한 메타포를 제시한 신혼부부는 총 43명(32.3%)로, 이들은 놀이터(n=16), 실내놀이터(n=7), 놀이방(n=5), 놀이공간(n=4), 문화센터(n=2), 어린이 도서관(n=2), 키즈카페(n=1), 공부방(n=1), 놀이교육(n=1) 등의 메타포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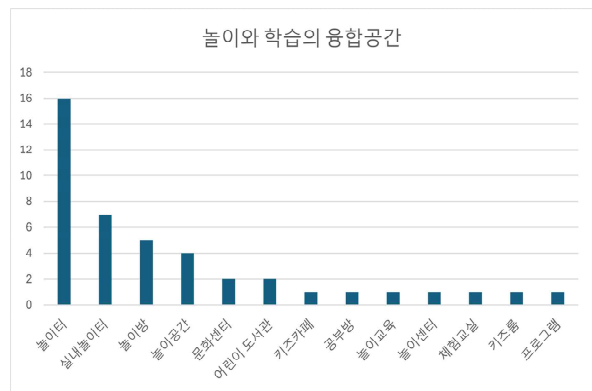


그림 1. 놀이와 학습의 융합공간 빈도

-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멀리 가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응답자 87)
- 실내놀이터: "밖에서 놀기가 힘든 요즘, 실내놀이터는 육아에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응답자 111)

- 놀이방: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놀이방이 있으면 엄마들도 육아에 숨 쉴 틈이 생길 것 같아요.” (응답자 54)
- 놀이공간: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넓은 놀이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집 안에서만 놀기엔 너무 좁아요.” (응답자 17)
- 문화센터: “아이를 위한 미술이나 체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62)
- 방과후교실: “맞벌이 부부라 학교 끝난 후에 아이를 맡길 데가 필요해요. 방과후교실이 있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답자 48)
- 어린이 도서관: 집 근처에 책 읽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어린이 도서관이 필요해요.” (응답자 36)

응답자들이 제시한 메타포를 통해, 이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자녀가 즐겁게 뛰어놀며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통합적 공간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놀이터, 실내놀이터, 놀이방과 같은 공간은 신체활동과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며, 문화센터, 도서관, 공부방 등은 자녀의 학습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응답자는 키즈카페, 놀이교육 등의 개별적 표현을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자녀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메타포는 신혼부부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자녀의 놀이와 학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공간, 나아가 가족 모두가 심리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자녀 보육과 돌봄의 공간

‘자녀 보육과 돌봄의 공간’ 주제에 대한 메타포를 제시한 신혼부부는 총 35명(26.3%)로, 이들은 어린이집(n=9), 보육시설(n=9), 돌봄시설(n=8), 교육시설(n=5), 유치원(n=2), 방과후교실(n=2) 등의 메타포를 제시하였다. 주제에 해당되는 메타포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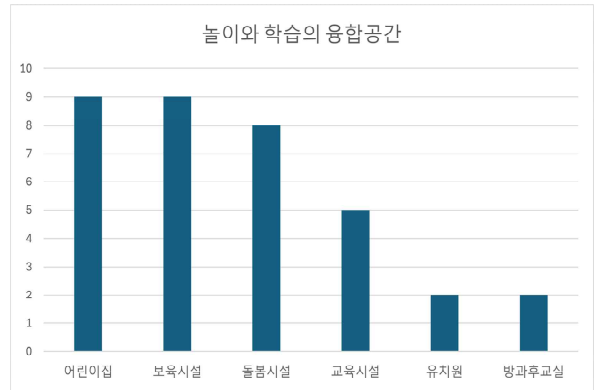


그림 2. 자녀 보육과 돌봄의 공간 빈도

- 어린이집: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은 워킹맘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응답자 12)
- 보육시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응답자 107)
- 돌봄시설: “긴급상황이나 야근 시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응답자 139)
- 교육시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커뮤니티 안에 양질의 교육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103)
- 유치원: “집 근처 유치원이 부족해서 늘 대기 중이에요. 신혼타운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답자 113)

이와 같이 ‘자녀 보육과 돌봄의 공간’을 메타포로 제시한 신혼부부들은 육아 부담의 분산과 안정적인 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절실함을 나타냈다. 이들은 단순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넘어, 전문성과 안정성, 교육적 환경이 결합된 보육 및 돌봄 시설을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사회초년 부모의 현실을 반영하듯, 근거리 접근성과 긴급대응 가능성,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주요 필요로 꼽고 있었다. 커뮤니티 시설이 자녀 돌봄을 돕는 역할을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응답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 3. 건강과 안전보호의 공간

‘건강과 안전 보호의 공간’ 주제에 대한 메타포를 제시한 신혼부부는 총 22명(16.5%)로, 이들은 안전시설(n=10), 안전(n=3), 체육관(n=2), 공원(n=2), CCTV가 있는 놀이터 및 키즈시설(n=1), 냉방시설(n=1), 산책로

(n=1), 서밋(n=1), 아동 안전이 보장된 시설(n=1) 등의 메타포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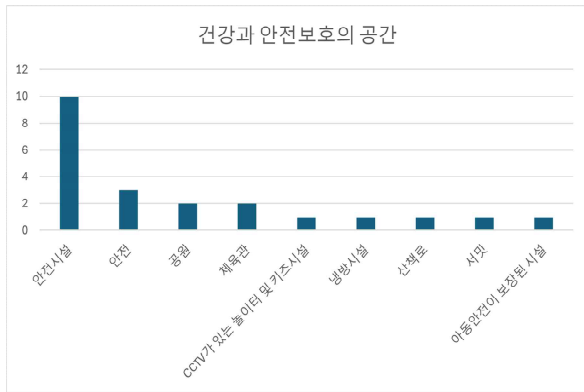


그림 3. 건강과 안전 보호의 공간 빈도

- 안전시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지 않도록 시설마다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야 해요.” (응답자 112)
- 안전: “단지 내 차량 통제, 출입통제가 잘 되어야 아이를 혼자 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답자 76)
- 체육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족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 67)
- 공원: “자연이 있는 공원은 아이들 면역력 키우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 꼭 필요해요.” (응답자 144)

이와 같이 ‘건강과 안전 보호의 공간’을 메타포로 제시한 신혼부부들은 육아의 기본 조건으로 안전과 건강의 확보를 꼽았다. 특히 안전시설의 확보, CCTV 설치, 차량 통제 등 물리적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실내 체육관, 공원, 산책로 등 가족 단위의 신체 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또한 날씨나 계절에 제약받지 않는 냉난방 시스템, 휴식과 치유를 위한 조용한 쉼터, 아동 안전을 철저히 고려한 공간 설계 등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양육자의 불안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응답들이 주를 이루었다.

#### 4. 육아지원의 허브

‘육아지원의 허브’ 주제에 대한 메타포를 제시한 신혼부부는 총 19명(14.3%)로, 이들은 공동육아(n=5), 육아 커뮤니티(n=3), 커뮤니티공간(n=3), 육아공유공간(n=2),

육아용품대여(n=2), 맘스스테이션(n=1), 육아상담실(n=1), 육아센터(n=1), 종합보육센터(n=1) 등의 메타포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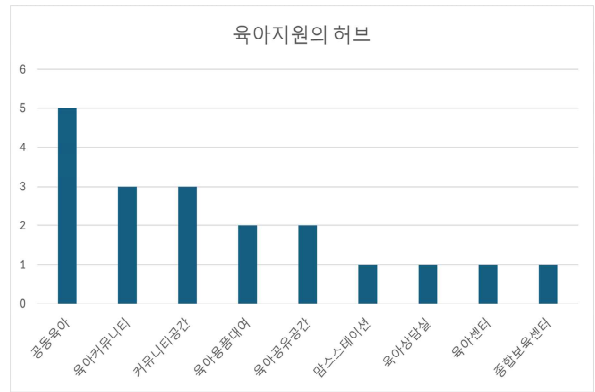


그림 4. 육아지원의 허브 빈도

- 공동육아: “같은 단지에 사는 엄마들과 함께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 74)
- 육아커뮤니티: “육아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육아 커뮤니티가 있다면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응답자 58)
- 커뮤니티공간: “대화하거나 함께 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면 육아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 같아요.” (응답자 17)
- 육아공유공간: “장난감이나 책을 공유할 수 있는 육아공간이 있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도 절약될 것 같아요.” (응답자 92)
- 육아용품대여: “아기 의자나 보행기처럼 잠깐 쓰고 마는 물건을 빌릴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죠.” (응답자 120)

이처럼 ‘육아지원의 허브’에 해당하는 메타포를 제시한 신혼부부들은 육아의 부담을 나누고, 상호지지와 정보 교류가 가능한 네트워크 공간을 요구하였다. 공동육아, 공유공간, 커뮤니티 기반의 육아지원은 양육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육아 고립감을 줄이며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육아용품 대여, 전문가 상담, 종합보육센터 등은 육아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허브로서의 기능을 제시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메타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 ‘정보와 지원이 흐르는 중심지’로서 커뮤니티 공간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혼부부들의 기대

를 반영하고 있다.

## 5.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및 편의성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및 편의성’ 주제에 대한 메타포를 제시한 신혼부부는 총 14명(10.5%)로, 이들은 편의성(n=5), 편의시설(n=4), 식당(n=1), 신혼커뮤니티와 멀티룸(n=1), 어린이 식당(n=1), 영화관(n=1), 온가족 카페(n=1) 등의 메타포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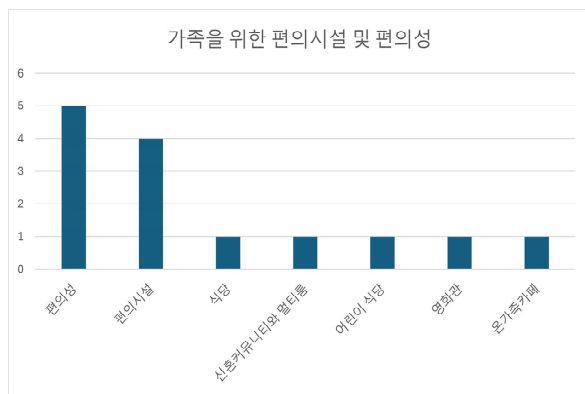


그림 5.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및 편의성 빈도

- 편의성: “장보러 갈 때 유모차 끌고 다녀도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성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67)
- 편의시설: 작은 마트나 카페, 세탁소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단지 내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 52)
- 신혼커뮤니티와 멀티룸: “입주자들끼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공간이 있다면 교류도 되고 정서적 안정도 될 것 같아요.” (응답자 14)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및 편의성’ 주제에 응답한 신혼부부들은 일상생활의 효율성과 가족 중심의 여가·휴식 공간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응답자들은 특히 시설 간의 거리, 이동 편의성,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언급하며, 이는 아이를 동반한 외출의 피로도를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어린이 식당, 온가족카페 등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하며, 신혼기부터 자연스럽게 가족 중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러한 메타포들은 결국 ‘가족 모두를 배려한 공간 설계’가 커뮤니티의 핵심 가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133명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인식을 은유적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놀이와 학습의 융합공간’, ‘자녀 보육과 돌봄의 공간’, ‘건강과 안전 보호의 공간’, ‘육아지원의 허브’,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제시한 주제는 ‘놀이와 학습의 융합공간’이었다. 놀이터, 실내놀이터, 어린이 도서관과 같은 공간은 아이들이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동시에 감각적, 언어적, 인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권혜진 등(2020)의 연구[10]와 이예지(2023)의 연구[17]에서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놀이터와 유아교육 지원 공간’이라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안전하면서도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을 통해 놀이와 학습의 통합이 가능한 공간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육아 초기 부모들이 정서적 안정, 학습 기초 제공, 또래 관계 형성의 세 가지 기능을 한 공간에서 실현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향후 커뮤니티 설계 시 복합 놀이학습 공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티 공간이 복합적 기능을 반영해 통합적으로 설계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실내놀이터는 단순 놀이 공간을 넘어 체험과 부모 소통이 가능한 복합 육아지원 플랫폼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둘째, 다음 주제는 ‘자녀 보육과 돌봄의 공간’이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돌봄시설’ 등은 맞벌이 부부가 다수를 차지하는 신혼세대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공간의 필요성을 상징한다. 이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보육관련 커뮤니티 공간이 신혼부부 및 젊은 가족에게 선호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며[17], 도시

집합주택 거주자들이 교육환경 특히 보육과 교육지원 시설에 높은 선호를 보인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18]. 참여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이 있다면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응답을 통해 보육의 사회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는 커뮤니티 시설이 개인의 양육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육 및 돌봄 중심에서 가족 전체를 고려한 커뮤니티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존 커뮤니티 시설이 어린이 중심의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면, 본 연구는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식당, 온가족카페, 영화 및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은 가족 정서 안정과 유대감 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다음 주제는 ‘건강과 안전 보호의 공간’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 ‘공원’, ‘운동시설’ 등은 자녀와 가족 모두의 물리적 건강과 정서적 안전감을 보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 이는 이다은, 서원석(2021)의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특징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확보라는 결과와도 연결된다[19]. 특히 “CCTV가 있는 놀이터”,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함께 있었으면” 등은 공공성과 사적 활용의 균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커뮤니티 공간이 개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공공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커뮤니티 설계 시 범죄 예방 환경 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원칙 적용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설계 지침에서는 CPTED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음 주제는 ‘육아지원의 허브’로 나타났다. ‘공동육아’, ‘육아상담실’, ‘육아공유공간’ 등은 물적 지원뿐 아니라 정보, 감정, 경험의 교류를 통해 신혼부부가 상호 지지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이는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부모 간 상호교류라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20][21]. 응답자들은 “다른 부모들과 아이 키우는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공동육아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부담이 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커뮤니티 시설이 단순한 공간제공을 넘어 사회적 연결망 형성의 기반이 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지지 기반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동육아, 육아상담실, 맘스스테이션과 같은 공간은 물리적 편의뿐 아니라 심리적 안도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 공간으로 기능한다. 신혼부부들이 육아를 개인의 고립된 책임으로 느끼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은 상호작용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소통 기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다음 주제는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편의성’, ‘편의시설’, ‘식당’, ‘온가족카페’ 등은 자녀 중심 공간 외에도 부모와 가족 전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으로 가족단위의 여가와 휴식이 강화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시설이 자녀 중심에서 가족 공동의 삶으로 기능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지지한다 [10][22]. 본 연구 참여자들도 “아이와 함께 식사하고 싶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멀티룸이 있어 가족모임이나 공동체 활동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커뮤니티 시설이 단순한 복지공간이 아닌,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정책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가족의 일상과 공동체 활동을 연결하는 통합형 커뮤니티 설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커뮤니티 시설을 ‘시설’이나 ‘공간’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접근을 넘어, 신혼부부의 삶과 가치, 경험을 담아내는 실존적 공간으로 확장하여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메타포 분석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면적 인식과 정서적 의미망을 드러냄으로써, 양적 수요 중심의 정책 접근에서 간과되기 쉬운 삶의 질과 공동체 감각에 기반한 주거복지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량적 접근을 넘어 신혼부부의 삶과 가치, 경험을 담아내는 실존적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해하고, 은유적 언어를 통해 그들의 내면적 인식과 정서적 의미망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놀이와 학습의 융합공간’, ‘육아지원의 허브’와 같은 범주는 단순한 기능적 수요를 넘어 부모의 삶의 가치, 사회적 관계망,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이는 기존 연구[10-12]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신혼부부의 전환기적 욕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은유적 인식을 탐색함으로써, 신혼기 부모의 삶과 공간에 대한 기대를 질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과 함께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으로 제한되어 있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방 거주 단지, 민간 분양 아파트, 기존 주거지와 같은 다양한 지역주거 유형을 포함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혼희망타운 특수성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신혼부부의 공간 인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개방형 설문을 활용한 메타포 분석에 집중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나 심층 면접을 병행하여 맥락적 의미를 풍부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응답에 내재한 경험적·문화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은유적 인식을 질적으로 범주화하고 빈도 분석을 통해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에는 도출된 범주와 주요 메타포를 토대로 정량적 척도를 개발·타당화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회귀분석 등 양적 검증을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시설 인식과 실제 이용 만족도, 삶의 질, 주거 안정성 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G. Lakoff and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2] 강승지, 손연주, “메타포 분석을 통한 부모의 유아 놀이공간 인식 연구: 놀이터와 키즈카페를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pp.1-24, 2018.
- [3] 강승지, 손유진, “유아 ‘놀이’ 및 ‘학습’의 관계에 대한 부모 인식 연구: 메타포 분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제38권, 제5호, pp.211-231, 2018.
- [4] 이은하, “아이돌봄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메타포(Metaphor) 분석,” *놀이치료연구*, 제26권, 제2호, pp.61-73, 2022.
- [5] J. Zou, C. Fuller, and L. Wang, “The Interplay Between Cultural Models and Metaphor Understanding: A Cross-Cultural Cognitive Perspective,” *Frontiers in Psychology*, Vol.16, Article 1539784, 2025.
- [6] H.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1991.
- [7] V. Held,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8] J. Tronto,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3.
- [9] 천하봉,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주거공간의 공간경험디자인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제8권, 제1호, pp.294-308, 2023.
- [10] 권혜진, 이진원, 이현수, 김성희, 최윤정, “신혼희망타운 커뮤니티 시설 개발을 위한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 및 시설 선호경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9권, 제2호, pp.94-105, 2020.
- [11] 강다연, 김덕수, “대전시 민간분양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의 선호도와 이용 후 만족도 차이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0권, 제11호, pp.57-67, 2024.
- [12] 송채운, 황세원,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시설의 진화와 지역적 격차 양상 - 강남과 강북의 배치 전략과 공간적 자족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45권, 제1호, pp.763-766, 2025.
- [13] 정정희, 김용선, 장윤영, “주택건설 관련 법적기준으로 본 전주시 국민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제19권, 제2호, pp.45-58, 2021.
- [14] G. Kılıçaslan, “Women’s Metaphors of Resistance: Female Subjectivity and Solidarity in Gezi,”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70, pp.65-72, 2018.
- [15] E. M. Lim, “Metaphor Analysis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onception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Vol.51, 101455, 2024.
- [16] 신유진, 이연숙, “경기도형 행복주택 커뮤니티시설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 수원시 광고의 신혼유아 가구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9권, 제5호, pp.42-52, 2020.

- [17] 이예지, *공동주택 단지 내 육아 커뮤니티 공간의 개방성에 대한 주체별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18] 구시문, 이민희, 방지희, 조충현, 정희정, “도시형 집합주택의 교육환경 커뮤니티공간 선호도 연구,” *공공디자인연구*, 제14권, pp.55-64, 2024.
- [19] 이다은, 서원석,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1호, pp.1-15, 2021.
- [20] 김태연, 이나련, “자조모임 참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회지*, 제42권, 제6호, pp.755-770, 2021.
- [21] 조하연,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양육 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22] 황연희, 박종우, “아파트 커뮤니티의 서비스스케이프가 주거만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 *품질경영학회지*, 제51권, 3호, pp.329-346, 2019.

이지영(Jiyoung Lee)

정회원



- 2012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M.Ed.)
  - 2021년 1월 : Tarlac State University 교육경영(Ed.D)
  - 2021년 6월 ~ 현재 : Cebu Normal University 유아교육(Ed.D cand.)
  - 2024년 8월 ~ 현재 : Tarlac State University 영어언어교육(Ph.D. cont.)
  - 2028년 8월 ~ 현재 : Tarlac State University 영어학과 전임강사
- 〈관심분야〉 : 유아교육, 한국어 교육, 언어교육, 교육경영, 상담심리 등

### 저자 소개

권혜진(Hye-Jin Kwon)

정회원



- 2009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이학석사)
- 2015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이학박사)
- 2021년 4월 ~ 현재 : (주)키아이중합건설 대표이사
- 2025년 7월 ~ 현재 : 신구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건축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등